

W\_F\_012

## 도깨비 행세 햇당 원수 뛴 사위

2016년 12월 7일,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마을회관, 송정희 조사.  
김춘옥(여, 1939년생, 구좌읍 종달리)

**[제보자]** 응 우리 종달리 마을 사람인디 도깨비 잇인 집인디 이젠이 그 집이 딸이 삼형젠  
디 사위가 있는데, 이 셋 곡식이 나면은 이제이 도체비 구신한테 바쳐야 데여.  
우리 종달리 본향당 돌 잇어. 게난이 범벽을 헤가지고 대충 수수 조밧 안에 수수  
를 갈아놨어. 거믄 챙거당 그걸 장만해가지고 수수범벽을 헤가지고 그 도체비 구  
신나시 바찌는 거라이. 겐디 바찌레 가젠 헨디 두 번째 사위가 딱 나타나서 보난  
'아 요거 우리 장모님이 도체비 구신헤네 이거 바찌레 값구나.' 헨디, 우장이 우  
장 입고 헹 비오는 날인데. 딱 앗안 고낭 영 앗아가지고 딱 헹 왓이난 생전 그런  
것이 엇는데 그 사름은이 딱 앗안.

"야."

"영 헤네 세곡식 헹 정성행 앗안 왓우다."

"어 그레 놔두고 가라."

영 헹 불었어게. 거난이 겁나네 그이 그 범벽 헹 간 사름은 겁나고 그 낭푼채  
던져동 그냥 온 거라. 사위가 진짜로 사위가. 겐 이젠이, 장난헌 거. 사위가 그  
범벽을 실컨 먹고이 이 경 헤난 쫌 잇이난이 혼 멧 둘을 멧 둘을 걸렸어이. 멧  
둘을 걸련 이젠 햇는데. 이제 그 딸이 가보니깐 아, 그 저 가시어멍네 집에 뚫네  
집을 그 가시어멍이 갓거든. 강 보난 자기네 그 낭푼이 잇는 거라. 이 낭푼 잇이  
난이.

"아 요놈이 사위가 절대 구신이 나왕 얘길 아니 들어 봤는디 이거 응 사람이  
사위가 들엉 그 지랄햇수다."

헤네이, 막 원수뺏어 원수, 원수 뛴 죽었어. 장모허곡 사위가 원수뒈 불었어.  
사위는 장난끼 잇는 사람이니깐.

"아 우리 장모 헹 값구나 나가 강 복창 먹어줘야지."

복짱 먹어벗주게. 언덕진 데 그 고망 난 돌 잇어. 그 관광 오민 구경 혼 번 햇  
일 거라. 동굴 아래 도깨비 구신 모시는 디가 잇었던 모냥이라. 구신 모시는 집에.

- 핵심어 : 종달리, 도깨비, 장모, 사위, 수수범벽, 구신, 구좌읍 종달리